

축복을 흐르게하는 사람들의
지·구·촌·이·야·기

2014.10 vol.9

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

비에프월드(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는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 자원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1년 외교부 허가를 받은 외교부 산하의 사단법인 개발협력 민간외교 NGO입니다.

비에프월드의 비전과 사명

B.F.World(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는 가난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국경을 초월하여 긴급구호와 개발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인류의 존엄성 존중을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NGO입니다. 이를 위해, 문명과 정부기관의 보호로부터 소외된 소수종족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소외지역 개발, 가난퇴치, 아동보호, 교육, 질병 예방과 치료, 긴급구호 등의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합니다.

Cover story



처음 만들어본 바람개비,
서툰 솜씨지만 봉사단원들의 도움을 받아
제법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든 알록달록 바람개비가 바람에
힘차게 돌아가는 걸 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발행처 사단법인 비에프월드

발행일 2014년 10월

발행인 최남수

편집인 김준기

편집 비에프월드 홍보팀

전화 031-873-1691, 070-4271-9646

팩스 031-873-1692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217

광명비전센터 210호

디자인제작 디자인코칭

홈페이지 www.bfworld.org

페이스북 [bfworld1691](https://www.facebook.com/bfworld1691)

후원문의 및 신청 031-873-1691

후원계좌 (예금주:사단법인비에프월드)

국민은행 536201-01-344056

신한은행 100-027-256395

신협 131-017-104424



03 _ 목차

04 _ 사진 한 컷

06 _ 꿈의 학교 프로젝트 / 학교가 완성되었습니다!

08 _ 해외봉사단 특집 1 / 해외봉사단 이모저모

10 _ 해외봉사단 특집 2 / 마당을 쓸었습니다 글 이재영

12 _ 해외봉사단 특집 3 / 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 It's you! 글 양경선

14 _ 비전나누기 / 그냥 우물이 아니라 "예샘"이죠! 글 광명교회 초등1부

16 _ 비에프월드 뉴스

18 _ 후원자명단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날 곳

꿈의 학교 2호가 라오스에 건축되었습니다!

이제는 옆 교실 수업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벽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아닌 환한 전등불 밑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타일이 깔린 교실바닥에서 친구들과 뒹굴며 구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모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꿈의 학교 제2호가 건축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라오스에 처음 방문하여 꿈의 학교 건립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과 너무나 닮은 그곳, 아이들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 곳이지만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그곳. 교과서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해 선배들이 사용하던 손 때 묻은 책과 빼먹대는 책걸상위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의 모습에서 라오스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라오스에서 수도와 한참 떨어진 이 산골마을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며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꿈의 학교 2호 건축이 추진되었습니다.

많은 후원자들에게 함께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지난 2013년 12월 21일, 라오스 꿈의 학

교의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건축이 진행되어 가면서 때론 크고 작은 일들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담아 아름답게 학교가 지어져갔습니다.

라오스에선 학교 건축으로 한 참 바쁘게 시간이가고 있을 때, 한국에선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모금활동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자녀의 손에 돈을 쥐어주며 '라오스라는 나라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는거야'라고 이야기 해주며 아이를 모금에 참여하게 하시는 후원자님,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 많이 후원하지 못해 미안하다 거듭 인사하시며 후원금을 넣어주시던 후원자님, 어린아이지만 나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위해 엄마를 조르며 후원금을 주었던 어린 친구들, 여러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물심양면 함께 동참해주셨던 많은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정성에 우리는 더욱 힘이 났습니다!

스리랑카 바둘라 지역의 꿈의 학교 1호가 건립된 이후로 2년 만에 꿈의 학교 2호가 라오스 통미싸이에 완공되었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하루빨리 이곳에서 공부하길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선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분들에게도 기쁨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벌써 운동장의 한편에는 마을 주민들 스스로 옥수수를 심으며 밭도 일구고 있으며 예쁜 꽃과 나무를 심어 학교를 아름답게 꾸밀 계획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집처럼 여기며 아이들이 깨끗하게 오래 잘 사용할 수 있게 돕겠다'라고 마을 주민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현가능한 꿈으로 만들어주신 모든 비에프월드 후원자님들께 라오스 주민들과 아이들의 마음을 듬뿍 담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꿈이고 희망이며, 기적입니다.

아울러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려고 합니다. 깨끗한 책걸상과 큰 칠판, 교실 한편을 가득 채울 많은 책들과 교육기자재들이 필요합니다. 꿈의 학교를 통해 라오스의 한 시골지역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4기 해외봉사단의 이모저모



지난 8월 5일, 43명의 비에프월드 4기 여름 단기 해외봉사단이 한 여름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6박 8일간의 봉사단 여정을 짧게 소개해드립니다.

#학교건축 마무리작업



학교건축 마무리와 준공식 준비를 위한 건물 내외벽 및 창문, 출입문 페인팅을 하였다.
페인트칠도 으쌐 으쌐~ 신나게!

#의료봉사

통미사이 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7~8일 양일에 걸쳐 내, 외과 진료 및 물리치료, 치과진료를 진행하였으며, 약 700명의 주민들이 진료를 받았다. 현지 보건소 직원들과 치과의사가 방문하여 함께 봉사를 진행하였으며, 특별히 치과관련 의술과 경험이 부족한 현지 치과의사에게 한국의 의술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 귀한 시간이었다.



#어린이 놀이문화 및 교육

반딧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약 150명을 대상으로 7~8일 양일에 걸쳐 새로 지은 꿈의 학교 교실과 운동장에서 진행하였다. 예체능이 없는 라오스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여러 예체능을 접해볼 수 있도록 각종 교육자재 및 도구를 이용한 만들기, 사생대회, 체육놀이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구충제 배급 및 구강 건강을 위한 양치질 교육(노래와 율동으로)도 함께 하였다.



#꿈의 학교 준공식

8월 8일에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공무원, 군 관계자, 학교학생 및 반딧마을 주민 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문화봉사팀이 준비한 미술과 댄스공연으로 잔치의 분위기를 한껏 북돋아 주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났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 나태주 詩



마당을 쓸었습니다.

글 이재영
(4기 해외봉사단 아동사역 팀장)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나의 직장, 그 곳이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2014년 해외봉사단원 모집광고를 처음 접했을 때 제 마음을 움직였던 단어 역시 '라오스 꿈의 학교 초등학교 준공식'이었습니다. 내가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아닌 라오스의 아이들을 만나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막연한 설렘과 두려움 속에 나는 비에프월드의 해외봉사단원이 되어 이번 여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6월부터 시작된 준비과정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 다. 어떤 환경이 제공될 지, 몇 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몇 회기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은 급했지만 현지 사정으로 계속 바뀌는 상황 속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직업이 이번 라오스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 처음에 생각했던 나의 자만은 크게 부셔졌습니다.

내가 기준을 삼고 있는 초등학교의 모습, 학생들, 학교시설과는 너무나 다른 라오스 교육 현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라오스의 아이들에게 가장 맞는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계속될 때 쯤 계절은 절정으로 치솟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 하던 날, 나는 가르치고 있던 아이들 앞에서 (라오스 아이들을 만나면 마음을 열기 위해 배우기 시작한) 풍선 아트를 하면서 라오스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라는 나라가 있다고, 그 나라의 통미싸이라는 작은 산골에 초등학교 준공식이 있다고, 그래서 그곳에 선생님이 가서 라오스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을 보내주고 오려고 한다고,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라오스 아이들을 만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저희들이 자라고 있다고 꼭 알려주세요.”

아이들과 한 굶은 약속을 기억하며 드디어 라오스, 통미싸이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교통수단

을 활용하여 도착한 꿈의 학교와 마주한 나는, 예상보다 꽤 멀고 힘들어 잠시 잊고 있었던 설렘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까만 눈망울이 인상적인 라오스의 아이들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습해간 라오스 말은 성조때문인지 통하지 않고, ‘사바이 디(안녕)’만 줄곧 외쳐댔지만 아이들 눈 속 비친 나를 보는 일은 몽클함을 선물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준공식 날 아침, 우리가 아침식사를 하기도 전에 도착한 아이들과 꿈의 학교가 세워지고, 아이들이 집에서 조금은 더 가까운 곳에서 공부하고 꿈을 꾸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바디랭귀지 만으로 함께 색종이를 오려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그림으로 그리고, 함께 줄넘기를 하고, 물풍선을 던지고, 바람개비를 만들어 함께 바람을 맞았습니다. 모든 봉사를 마무리하던 날 라오스 대학생의 통역을 통해 내일 우리가 떠나고,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끝인사를 들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그 맑은 눈망울로 인사해주었습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는, 라오스 말도 아닌 우리말 인사. “안녕~.”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마음이 그 단어에 담겨있는지 우리는 한 번에 알아했습니다.



나누려 갔던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라오스 아이들의 미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지구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 돌아가면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겠습니다. 라오스에 있는 아이들 역시 너희들처럼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게 잘 자라고 있었다고. 선생님은 라오스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없다고. 오히려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온 빛진 자가 되었다고. 그 빛을 갚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나태주 시인이 이야기한 지구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겠습니다.

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 It's you!

글 양경선(4기 해외봉사단 간호팀장)



비에프월드를 통해 올해로 다섯 번째 해외봉사를 다녀오게 되었다. 5년 전 캄보디아 해외봉사 단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막 옮긴 직장에서 적응도 해야 하고 긴 휴가 일정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는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을 정하고 수간호사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다. 수간호사님은 단번에 거절하지 않고 간호부장님께 부탁 드려보겠다고 하였고, 간호부장님은 “여행도 아니고, 봉사를 간다면 보내줘야지”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나는 의료봉사팀 간호사로 해외 봉사를 가게 되었다. 의사 선생님의 진료와 간이 검사, 처치 후 투약이 이뤄지는 일상적인 의료가 제공되었지만, 가는 곳마다 진료를 받기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번호표를 들고 긴 시간을 기다렸다. 우리의 사역 일정은 서너 번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었다. 번호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창가에서 그저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안타까움이 내안에서 흘러나왔다. 진료를 받은 분들은 마치 불편하고 아파했던 곳이 금방이라도 나은 것처럼 기쁘하고 적은 약품을 받아 들고도 두 손을 모아 인사하며 고마워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순종하며 드렸을 뿐인데 그들의 미소와 만남을 통해 내 마음도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하는 일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나의 물질, 시간, 마음을 드리는 것이 정

말 가치 있게 느껴졌다. 그 이후로 나는 할 수 있을 때 하자! 갈 수 있을 때 가자! 라고 마음으로 다짐하였다.

“내게 맡겨진 일만 잘 하고 오면 되겠지” 일 중심,



사역 중심이던 나의 생각에도 “사람이 정말 중요구나, 관계가 중요하구나” 깨닫는 변화가 있었다. 의료 사역 뿐 아니라 아동, 문화 사역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청년 봉사단원들이 이 일을 너무 기쁘게 훌륭히 감당해냈다.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많았는데, 청년들은 이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안아주며 참 잘 놀아 주었다. 아이들은 한국의 놀이에 금방 익숙해져 청년들을 따르며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현지의 어른들 또한 마음이 열리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물질과 봉사하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잠시 채워줄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오래도록 남는 것은 함께 했던 시간, 만남, 관심과 사랑일 것이다.

이번 라오스 봉사에는 해마다 함께 봉사에 동참해 주셨던 간호사 선생님들이 못 가게 되었다. 조제팀과



진료팀 업무 부담이 필요해 최소 간호사 두 명은 있어야 했는데, 홀로 두 팀에 주의를 기울이고 감당하려니 부담이 많이 되었다. 다행히 모든 상황을 알고 적절히 일을 감당 하신 분이 함께 가셔서 도움을 주셨지만, 그동안 한 팀이 되어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감당해 주셨던 봉사 단원 한분 한분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해가 지고 모두 지쳐 있었지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음 다해 진료를 봐주셨던 의사 선생님, 가정과 직장의 일을 뒤로 하고 가셔서 페인트칠, 공사의 마무리 등 곳은일을 맡아주신 단원분들, 레크레이션으로 모두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셨던 선생님, 일인 다역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애써준 청년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제반 업무를 맡아 팀사역이 원활히 될 수 있게 도와 주셨던 간사님들, 모두 보석과 같은 분들이다.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해마다 관심을 갖고 봉사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작년 캄보디아 봉사에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께서 가셔서 고된 육체노동으로 생긴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올해 라오스 봉사에는 치과 진료팀이 함께 하셔서 앓는 이를 치료해 주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시간, 인력이 제한되어 있어 도움 요청이 오는 모든 곳에 갈 수 없다는 점이다. 비에프월드는 세계 70개국에 학교, 병원, 고아원을 세워 축복을 흘려보낸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축복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날 것을 믿으며, 부디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가진 것을 나누고 부요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있다. 우리가 가야 길이 된다. 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 바로 나이고 우리이다.



그냥 우물이 아니라 “예샘”이죠!!

글 광명교회 초등1부



4호 우물, 스리랑카 꿈의 학교 음수대

광명교회 초등1부에선 매년 여름이 되면 우물파기 성금을 모금하여 비에프월드 식수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4개국에 5개의 우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어떻게 매년 이런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다. 잠시라도 장난을 치며 떠돌고 싶어 하던 우리 아이들은 평범하지 않은 사진들을 보자 사진 속 포레 아이들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집중하였다.

“재는 왜 저렇게 땅에 입을 대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땅에 고인 물이라도 먹는 거야.”

“물이 없으면 다른 거라도 사먹으면 되잖아요?”

“물 대신 다른 것도 마실 게 없는 나라야.”

“어? 주스 마신다.”

“이건 주스가 아니라 흙탕물이야. 마실 물이 필요하니까 이거라도 통에 담아서 집에 가져가야하는데 중간에 목이 마르니까 마시고 있는 거지. 어때, 너희들은 마실 수 있겠니?”

“아뇨”

사진속의 물을 한 번 마셔보라고 진작으로 권한 것도 아닌데 자신들은 절대로 못 마시겠다고 입장을 밝히듯 그렇게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였다.



올해도 성금을 전달해준 초등1부

“이게 뭘지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

아이들에게 문자 고개를 저었다. 흙탕물, 썩은 물을 마셔서 기생충이 생겼고 그것이 다리나 발바닥 등 몸을 뚫고 나온 거라는 설명을 듣자 우리 아이들은 정말이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 짧은 말씀시간은 어린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와 닿았고 2010년 그해 여름 우리는 귀한 미션을 함께 나눌 준비를 하였다.

‘물이 필요한 지역에 우물을 만들어 주자.’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 우리는 먼저 저금통에 동



우물파기를 위해 모금 운동을 하는 초등1부 아이들



전을 모으기로 하였다. 어떤 친구들은 저금통 몇 개를 가져다가 채워지는 즉시로 가져오기도 했다. 또 헌 옷도 모았다. 신문, 헌 책, 고물 등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들을 수집했다. 프라이팬이나 냄비 등 안 쓰고 못 쓰는 주방용품들을 모은다고 했는데도 어떤 친구는 집에서 쓰고 있는 것까지 가져와서 엄마가 찾으러 온 적도 있었다. 그만큼 함께 뜻을 나누고픈 열정이 가득했었다. 이렇게 모아진 돈으로 우리는 케냐(2010년)에 1호 우물을 만들었고 캄보디아(2011년)에 2호 우물을 만들었다.

매년 여름 즈음이 되면 우리의 우물파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어떤 분들은 고물이 생기면 언제 우물파기를 할 건지, 또 우리에게 갖고 와도 되는지 물어보시기도 한다. 이후로 우리는 라오스(2011년)에 3호, 스리랑카(2012년)에 4호, 라오스 축구캠프(2013년)에 5호, 2014년 라오스 꿈의 학교에 6호 우물을 만들어 주었고 올해 여름 라오스에 다시 7호 우물을 만들기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우물파기 시작은 2010년 그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에서 비롯되었다. 그 작은 관심이 미션이 되어 지금까지도 우물을 통한 사랑을 나누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또 우리만의 미션을 넘어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다시금 감사하다.

우리가 만든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이 우물의 이름은 “예샘”이다. 축복을 흐르게 하는 샘물. 물이 필요한 지역에 우물을 만들고, 그래서 좀 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자는 것뿐만 아니라 “예샘”을 통해서 축복과 기쁨이 더불어 샘솟아나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전해진 후원금으로 만들어진 캄보디아 우물





라오스 꿈의 학교 프로젝트 점검 차 방문

건축되고 있는 꿈의 학교의 공사대금 지급과 건축 점검을 위해 프로젝트 진행팀이 지난 4월 24일~28일에 라오스 통미사이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건축업자와 함께 설비부분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의 기대 속에 꿈의 학교가 어떻게 완공되어질지 너무나 기대되고 설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후원물품(의류, 생필품) 발송

여러 기업과 후원자님들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보내주신 의류와 각종 생필품을 모아 필요로 하는 나라에 보내졌습니다. 기부해주신 의류 약 1000벌 가량은 라오스로, 아동 장갑은 국제민간협력단체인 사단법인 그린티쳐스를 통해 몽골의 아이들에게 보내졌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아동 옷 및 생필품을 보냈습니다. 관심 가지고 각종 현물로 후원해주신 기업과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임시이사회의 소집

1, 2분기를 보내며 상반기 사업보고 및 결산을 위한 임시이사회의가 지난 6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꿈의 학교 건축사항 보고 또한 나눴으며 비에프월드의 발전을 위해 상반기기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KCOC 주관 민간단체 사업발굴지원 프로그램 선정 및 지역조사 실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이하 KCOC)에서 주관하는 KOICA 민간단체 사업발굴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단체로 선정되어 라오스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발굴조사를 위해 지난 7월 9일~18일 조사팀이 파견되었습니다. 이번 KCOC 지원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라오스 문화의 이해와 지역정보 습득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점검하고 구체적으로 라오스 지역개발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교훈삼아 지속가능한 사업이 발굴되어지고 진행되어지길 희망합니다.



꿈의 학교 리모델링 학교 현판전달

꿈의 학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낙후건물 리모델링이 진행된 라오스 수도에 위치한 상어이 초등학교에 지난 7월 16 방문하여 현판을 전달하였습니다. 비에프월드 꿈의 학교 프로젝트는 신식건물 건축지원은 물론, 낙후 건물의 리모델링 지원과 교육자제지원, 교사교육지원 및 교육시스템지원 각 분야를 포함한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꿈의 학교 프로젝트가 진행되길 소망합니다.



라오스 학교 건축기금마련 모금운동

라오스 꿈의 학교 건축 및 기자재구입을 위한 기금 모금운동이 지난 7월 27일과 8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광명비전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라오스 꿈의 학교, 천원의 기적"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진행된 이날의 모금은 많은 기금이 모아지는 못했지만 비에프월드의 사업을 알리고 모금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4기 여름 단기 해외봉사단 파견

비에프월드 4기 여름단기 해외봉사단이 지난 6월 5일 첫모임을 시작으로 2주에 한번 전체모임을 진행하며 봉사일정을 준비하고, 드디어 8월 5일에 43명의 봉사단원들이 출발하여 8일 간의 봉사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4기 해외봉사단은 의료, 어린이, 문화, 지역개발, 노력봉사를 하고 돌아왔으며 특별히 제 2호 꿈의 학교 준공식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문화적, 의료적 혜택이 없는 지역을 찾아가 봉사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는 아주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비에프월드 봉사단이 더 많이, 많은 곳으로 파견되어 질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식탁, 짜장면 데이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비에프월드 사랑의 식탁(화요무료급식)이 지난 8월 19일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오감봉사단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해드리는 특별한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오감봉사단은 전직 청와대 조리장님을 포함한 순수자원봉사단으로 군부대, 재난지역(이번 세월호참사 때 진도에서 유가족을 위한 무료급식 진행), 소외계층을 찾아가 짜장면을 대접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사랑의 식탁을 찾아오신 300여명의 어르신들은 이날의 깜짝 이벤트에 맛있게 식사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실 리모델링

지역봉사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8월23일~24일 양일에 걸쳐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방문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이동 경사로 공사와 전기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단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재능기부자를 찾습니다!

분야 : 홍보(모금 및 홍보활동), 영상촬영·제작, 일러스트, 포토샵 및 기타 업무보조 등 또는 교육, 건축관련 종사자

*시간 자율(경기북부지역 거주자 우선)

*신청은 비에프월드 사무실이나 홈페이지(후원마당-재능후원)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청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냈을 때의 혜택!

기부자	기부금 혜택	기부금 혜택 한도
개인	소득공제혜택	기부한 연도의 소득금액 30%(종교단체는 10%)
법인	손비로 인정	기부한 연도의 소득금액 10%

*비에프월드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5년간 누적 공제 가능

*연말정산(기부금영수증) 신청은 비에프월드 사무실(대표전화 031-873-169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회원

함께 나누어요! 나눔은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기업 및 단체후원

JBN 성우라이프사이언스 인앤아웃스포츠 (주)가구21 CMG제약 동구제약 메디카코리아 안국약품 한독 한미약품 (주)삼천당제약

개인후원자명단 (2014년 5월 ~ 8월 31일까지)

강경숙 강경자 강동근 강복인 강서경 강선곤 강성문 강성진 강순이 강연희 강원길 강인자 강진성 강진희 강초롱 강현옥 강희경 고성애 고인숙 고춘자 고호석 구구희 구영옥 구희순 권순덕 권순창 권영길 권오승 권정남 권종필 김경은 김 전 김 진 김경문 김경숙 김경심 김경아 김경주 김경희 김규란 김금분 김금선 김금숙 김금자 김기숙 김기혁 김난신 김난주이춘득 김남주 김남진 김남예 김대중 김동원 김매자 김명숙 김명자 김명희 김문정 김미성 김미소 김미숙 김미옥 김미정 김미화 김민경 김민정 김민주 김민희 김병국 김병순 김병철 김복인 김상우 김선미 김선옥 김선자 김선하 김선희 김성남 김성미 김성석 김성은 김성준강해정 김성희 김세엽 김수경 김수정 김숙자 김숙진 김순곤 김순선 김승태지영희 김승훈 김시내 김시은강해정 김시우 김시현 김신웅 김애영 김연숙 김연지 김영강 김영곤 김영란 김영미 김영순 김영실 김영재 김영화 김옥분 김옥선 김옥자 김용애 김용철 김용훈 김우순 김유정 김유필 김 윤 김윤식(금강섬유) 김은기 김은빈 김은우 김응수 김익숙 김인숙 김일경 김장순 김정애 김정선 김정하 김정자 김정현 김종구 김종남 김중수 김중순 김중현 김주성 김주호 김준기 김지연 김진나영 김진성 김진수 김진영 김진옥 김진필 김찬미 김창국김지선 김춘희 김태근김신혜 김태순 김태연 김하민 김학영 김한숙 김향주 김향희 김현숙 김현정 김형선 김혜경 김혜덕 김혜련 김혜민 김혜진 김환순 김효열 김휘자 나순정 나윤상 남경아 남궁진 남상인 남정길 노남길 노정현 노지훈 노창훈 단영규 동숙경 라선하 라옥희 류금례 류선이 류원준 류정아 마분월 마호정 명현옥 문경란 문영자 문제만신순옥 문형식강성실 민경신 민병춘전미나 민성애 민응규 민정화 박경숙 박금주 박기술 박기홍 박기화 박영남 박명선 박미숙 박미연최효달 박민영 박민하 박민희 박선우 박신혜 박성진 박세희 박소영 박순녀 박순란 박순무 박순화 박배자 박영례 박영선 박용민 박용자 박용표 박은숙 박은혜 박은희 박인수 박임진 박점수 박정민 박정연 박정자 박종원 박박진 박찬웅 박창수홍은선 박찬규 박철곤 박태순 박현정 박혜숙 방대한 방영수 방영재 방월남 방인원귀우창 방종호 배금봉 배미수 배영자 백경호 백덕기 백성자 백승준 백승희 백영보 백은정 백진민 변지연 사제옥사은혜 서경석 서 구 서미옥 서윤순 서은화 석산옥 석정호(천일특수미상) 소문정 소현수 손금자 손병권 손보라 손성식 손유순 손일찬 손혜경 송미정 송미희 송순영 송주인이경옥 송철승 신동석 신동진 신부식 신세형 신운철 신윤일 신일순 신재현 신주희 신춘자 심달완 심민규 심선에 심순진 안경빈 안봉혁 안숙희 안영춘 안예빈 안종권 안종희 안지섭 안혜순 양대원 양덕선 양승희 양순례 양순자 양숙은 양윤선 양은정 양정원 양진모 양철홍 양치준 양홍민 양희철 엄소영 엄윤호 여정은 광명교회영유아부 오금성장효미 오기호 오명숙 오선애 오선옥 오세진 오승식 오영선 오은자 오정순 오종진이경숙 오춘섭 오필석 오하엘 우경숙 우영식 우은희 우창민윤정기 우한나 원영수 원한숙 위배선 위종원 위치은 유강민 유경선 유경화 유미진 유성애 유연경 유영광유건우 유애상 유옥선 유인숙 유인영 유정화 유정희 유제영 유제원 유종복 유진숙 유혜숙 유형구 유혜경 유희경 유금자 윤나라 윤덕순 윤명현 윤성대 윤순상송민정 윤순옥 윤영옥 윤일영 윤재원윤명연 윤정기우창민 윤정숙 윤정용최성혜윤서영 윤정희 윤준노 윤준호 윤명연 윤찬희 윤창로 은기숙 이강순 이경란 이경민 이경옥 이재재윤명연 이경화 이광식 이규숙 이금란 이나리 이난희 이덕성 이덕순 이도경 이동숙 이동영 이등은 이동혁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무리 이만재 이명수 이명숙 이명철 이미경 이미애 이미지 이민자 이민지 이병록 이병현 이보훈 이복자 이상규 이상기 이상선 이선미 이선영 이선지 이선화 이성은 이상현 이숙경 이순이 이순자 이순주 이순현 이송민 이시교 이연기 이연수장수영 이연화 이영란배진형 이영숙 이영애 이영호 이영화 이영훈 이예빈이유빈 이옥선 이옥순 이옥희 이원자 이유미 이윤근 이윤서 이은숙 이은준김혜순 이재숙 이재신 이재숙 이정진 이정애 이정웅 이정자 이정화 이정환 이정희 이재준이명숙 이종식 이주경 이주황황지현 이주희 이지선 이지영이정곤 이지혜 이종림 이태성 이한규 이향숙 이현규 이현순 이현애 이현지 이현주 이혜경 이혜진 이효용 이화려 이효성 이효영 이희숙 이희숙 이희영 이희자 이희정 임명심 임문순 임수권 임영미 임영화 임옥숙 임응수 임재규 임종호 임현수 장미숙 장상미 장영희 장은심 장인수 장인순 장지수장성전장성은 장춘자 장대경 장하준 장한우 장현우 장현진 장화식 장효미 장효선 전경숙 전광현 전명진 전수지 전인희 전재일 전정아 전창대 전창영 전현미 전현숙 전현지 전공훈 정군자 정대순 정대평 정동우 정명희 정문순 정미경 정미향 정민 정보식 정선아 정세영 정소연 정순덕 정순자 정순호 정영만 정예은 정우일 정은공 정은미 정은순 정은주 정은화 정성권정해강 정정화 정종환 정지선 정춘희 정태희 정항영 정현정정미혜 정화숙 조경원 조기복 조기함 조명금 조명숙 조병희 조서연 조선례 조성자 조수임 조신애 조은미 조영삼 조영숙 조영준 조옥련 조은영 조인숙 조재옥 조정석 조정성 조정일 조진호 조혜경 조화숙 조효숙 조흥우 조희숙 조희옥 주순옥 주영자 주윤남 지정연 진미영 진순주 진원화 차미경 차순영 차일선 차정원 차한나 채경미 채정희 전명환 천소연 최낙권 최남수 최남철 최낙성 최명희 최미성 최성곤 최성순 최성숙 최성희 최소영 최순자 최순자 최승수 최선길이혜순 최영삼 최영숙 최영숙 최옥자 최우성 최근국 최은선 최은혜 최인숙 최재숙 최정안 최종근 최중문 최중현 최진규 최진수 최필호 최하림최용문 최학원 최현숙 최현준 최혜경 최혜영 최우성 주성남 추연수 추준호 추향자 표선홍 하경희 하선호 하수정 하인자 하종훈 하혜경 한구열 한미경 한미선 한미영 한민경 한상연 한선애 한수진(up&down) 한순자 한연숙 한영숙 한영철 한요순 한은주 한일순 한준수 한창호 한혜숙 함다은 함연덕 함주원 함현주 허경아 허선자 허영희 허원석 허은숙김윤식 허일화 허창희 허창희 허경만 허금례 한혜옥 홍경숙 홍경혜 홍기운 홍덕호 홍미정 홍복기 홍수영 홍순재 홍은경 홍이남 홍정순 황경대 황규진 황남열 황도자 황미하 황수정 황순용박인숙 황승민 황승원 황양옥 황윤순 황영옥 황은숙 황은아 황인례황영근 황정민 황진미 황철기 황태일 황현중남성미 황혜미 (주)바바피오

5월	총656건 14,223,000원	6월	총743건 34,540,951원 (2014년 해외봉사단회비 포함금)
7월	총738건 78,098,371원 (2014년 해외봉사단회비 포함금)	8월	총722건 17,828,500원 (2014년 해외봉사단회비 포함금)

신규 등록 후원자(2014년 1월~9월)

강진성 구구희 구인영(한준수) 김규란 김명숙 김명자 김민희 김성준 김시은 김영곤 김영철 김용철 김익숙 김진성 김진수 김향주 노정현 단영규 류원준 박민영 박선혜 박세희 박은숙 방종호 서경석 손혜경 송미정 양미연 양승희 엄소영 오미숙(이윤빈,이응범,이상해) 우한나 유희경 윤나라 이미소 이미애 이민지 이병록 이선지 이선화 이정환 이형주 이혜진 이효용 이화려 임영화 전가는 전승호 전희연 차한나 최영삼 최정일 최진숙 함다은 함주원 하정희 황성인 황철기

비에프월드 재정보고(2014년 5월 1일 ~ 8월 31일 현재)

항 목	내 용	금액(원)
전월이월금		30,112,700
국내/해외사업후원금	개인, 기업, 교회, 기관 등이 국내외 사업자원을 위해 내는 후원금 (CMS (자동이체) 후원 포함)	144,652,842
기타수입(예수금포함)	수입이자, 대출, 본지점대체	41,822,095
총수입		216,587,637

항 목	내 용	금액(원)
국내사업비	지역단체지원금 (의정부장애인부모회 외)지급	3,454,000
	사랑의 식탁(무료급식) 지원 사업비	5,494,460
	대전와우페스티벌 참가 및 지원 사업비	1,108,400
	장암복지관 지원사업비	431,460
	기타(직원워크샵 등)	215,020
해외사업비	해외아동결연후원금(4개국)	6,602,000
	2014년 해외봉사	56,691,596
	라오스 프로젝트 진행비 (학교건축관련)	68,688,931
	KCOC 지역조사 사업 진행비	7,312,549
후원관리 및 개발비	CMS수수료, 금융결제원요금, 소식지발행인쇄비, 홈페이지 관리비, 문자충전료 외	4,054,190
운영비	인건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제세금, 전산이용요금 외	26,828,370
기타	법인세, 4대보험, 대출금상환금, 본지점대체	14,061,382
차기 사업준비금	2014년 8월 31일 이후 사업 준비금(현물, BF shop 포함)	21,645,279
총지출		216,587,637

후원신청서

이름			
전화번호	TEL.	H•P.	
이메일			
우편수령주소			
CMS후원(자동이체)	☐ 월1만원 ☐ 월3만원 ☐ 월5만원 ☐ 기타()원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이체희망일	☐ 매월 5일 ☐ 매월 20일 ☐ 매월 말일 ※ 미납시 익월 2회분 이체됩니다.		
※ 후원과 동시에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 아동결연후원은 월 3만원이며 이체일은 매월 5일입니다. 무통장입금 (예금주 : 사단법인 비에프월드) • 국민 536201-01-344056 • 신한 100-027-256395 • 신한 131-017-104424		연락처 비에프월드(B.F.World) 사무실 Tel. 031)873-1691, 070-4271-9646 Fax. 031)873-1692	

해외 결연아동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쓰기

머나먼 이국땅이지만 사랑으로 묶인 우리

‘나에게 멋진 꿈을 심어주는 분은 누구일까?’

결연아동들은 후원자님에 대해 너무나 궁금해 합니다.

비에프월드를 통해 일대일 결연 후원하는 후원자님과

해외아동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편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편지쓰기 참여방법

① 예쁜 편지지에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정성껏 편지를 써주세요!

② 우표를 붙이고 비에프월드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217 광명비전센터 210호,

아동결연 담당자 앞 우)480-030

* 편지를 보내주시면 번역작업(약 1개월 소요)을 거쳐 아동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 편지지 외 스티커 및 사진은 첨부 가능합니다.

비에프월드는

4개의 사업장(필리핀, 남아공, 스리랑카, 라오스)의 아동들을

일대일 결연을 통해 후원하고 있습니다.